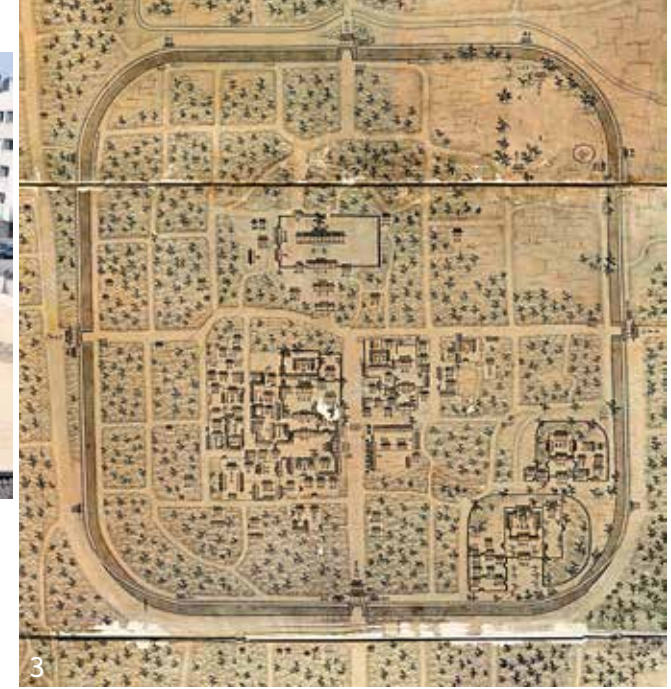


호남·제주 다스린 ‘전라감영’ 위용 드러내다

복원 완료로 전주 정체성 찾는다



1,2 복원 마무리 중인 전라감영 3 전주부성 고지도 4 전라감영 조감도

리자에게 건축물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라감영지에 임진왜란 당시 전라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若無湖南是無國家’(약무호남시무국가) 문구를 새긴 기념비를 세운다. 이 문구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인 1593년 사헌부에 보낸 편지에 담긴 것으로, ‘만약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는 의미다. 시는 국난을 극복하려는 장군 결의를 되새기고 전북이 호남의 중심이었음을 알려 도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m 높이의 기념비는 전라감영 정문인 내삼문 좌측 입구 쪽에 들어선다. ‘찬란한 꽃, 천년의 열매-전라감영’을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관계자만 참석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1884년 미국 임시 대리 공사였던 조지 클레이튼 포크(George Clayton Foulk)가 전라감영을 방문했을 때 펼쳐졌던 ‘승

전무’ 공연으로 시작된다. 전라감사를 지낸 이석표의 호남일기(湖南日記)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전라감사 업무 인수인계식도 재현한다. 이어 전라감사가 집무를 본 공간이자 전라감영을 상징하는 선화당 등 핵심 건물 준공을 알리는 현판 제막식도 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역사적 자긍심을 심어주고 전북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전라감영을 복원했다”면서 “전라감영 서측부지 등을 어떻게 활용하고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 끝나는 대로 2단계 복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❶

조선 시대 호남과 제주 지역을 다스린 전라감영(1만6천여㎡)의 1단계 복원 공사가 마무리됐다. 전주시는 104억원을 투입해 2017년 시작한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공사’가 최근 끝남에 따라 오는 10월 7일 전북도 등과 함께 준공 기념식을 한다. 전라감영은 오늘날 전북과 광주·전남, 제주를 관할한 전라도 최고의 지방통치 행정기구로, 전라감영의 중심건물인 선화당은 전라감사 집무실이다. 전라감영의 원형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진 복원공사를 통해 선화당과 내아, 내아행랑, 관풍각, 연신당, 내삼문, 외행랑 등 핵심 건물 7동이 제 모습을 찾았다. 전라감영로 일대는 1980년대까지 전주의 중심지였으나 2005년 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 등이 신시가지로 이전함에 따라 노후화한 건물과 거주 인구 감소 등 공동화 현상이 심화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전라감영 복원으로 문화 중심지로서 정체성을 되찾고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주변 건물이 전라감영과 조화를 이

루도록 외벽과 색상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전라감영에서 완산교까지 500m 구간 건축물에 전라감영로의 고유한 정체성을 담아 주민 스스로 관리하도록 경관협정을 체결했다. 이 일대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이 참여한 경관협정은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경관을 쾌적하게 바꾸고 지속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 시는 경관협정에 참여한 건축물 관리자를 위해 전문가 자문과 건축물 외관 정비 등을 통해 경관 개선을 돕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외벽, 창호, 지붕, 차양 등 건축물의 외관과 옥외광고물에 대한 색상, 재질, 디자인 형태 등 내용이 포함된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건축물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전라감영과 연계한 전통문화 콘텐츠에 현대적 감성을 담아 과도한 상징표현을 제한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시는 경관협정에 참여한 건축물 관



작은 생활습관 하나가 저탄소 녹색전주 구현의 밑거름이 됩니다.

지혜로운 녹색생활 실천 작은 일부터
우리 모두 지금 시작합니다.

